

불기 2548년 5월은 부처님 오신 달

“우리도 부처님 같이” Buddha's Birthday



“싫어, 난 안가. 엄마 혼자 갔다와.” 부처님오신날 행사에 함께 가자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돌아온 냉담한 반응. 어렸을 땐 넘죽넘죽 절도 잘만 하더니 커가면서 불교와는 지루만 멀어져 가는 아이들이다.

내 아이 불자 만들기

‘집안이 불교라서 아이도 불교’가 되는 시대는 지났다. 막연히 불교를 믿으라는 식의 구태의연한 방법 역시 아이를 ‘불자’로 만들 수는 없다. 한국불교의 미래는 새색 포교에 있다. 아이들이 ‘스스로 불자’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엄마’가 나서서 고민해 보자.

● 눈높이 교육을 실시하라

석갈암(중국대 불교학과 박사) 씨 집에는 50여권의 어린이 책들이 책장 한켠을 메우고 있다. 이 책들은 석 씨가 아이들을 위해 틈틈이 사모은 불서(佛書). 양질의 불서들을 갖춘 아이들은 독서습관을 기르고 불교이해의 틀도 마련해 ‘모범 새색 불자’로 유명하다.

아이들에게는 그들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포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다. 교리와 가까워지기 힘든 유아들의 경우 공양계 암송 등을 통해 불교에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한다. 교리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연령의 아이들에게는 청진이나 불교문화상품 증정 등의 동기부여를 통해 학습을 이끌어내는 것이 좋다. 관음사 어린이 법회 50여명의 새색 불자들은 지도교사의 칭찬에 힘입어 <금강경> 사구계송을 한 소리로 외 정도다. 암송 후에 이어지는 신명나는 계송풀이와 양껏 구비된 도서상품권이 놀라운 학습능력의 ‘당근’이라는 후문.

● 불교문화행사에 가보자

화계사 어린이법회와 이천영 군은 최근 연꽃 향정대회에서 수상한 이후 밤낮 잔불가 놀이거리는 재미에 한창 신이 나 있다. 뜻밖의 청찬과 박수세례에 한껏 고무된 천영 군. 이제는 교리 공부까지 일등하겠노라고 나서는데 통에 엄마까지 흐뭇해졌다.

문화마케팅이 화두가 되는 이 시대, 포교의 중심에도 문화가 있다. 화계사에서 수년간 어린이법회를 이끌어 온 전희자 지도교사는 “사찰 안에 갇힌 법회를 넘어서 사시사철 풍성한 불교문화행사를 적극 이용하라”고 당부한다. 수련회를 겸한 사찰답사도 좋고, 잔불가 견학대회나 부처님 그리기 대회 등의 연중행사도 참여할 만하다. 사불이나 사경 역시 체험을 이끌어내는 흥미로운 이벤트가 될 수 있다.

●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하라

동대부중 안주희 교사는 “불교가 쌓아온 콘텐츠를 현대에 맞게 풀어가는 작업은 이 시대 새색불자들의 몫이다”고 말한다. 동대부중의 최은영 학생은 최근 불교이모티콘 이미지 도안 개발에 한창이다. 처음에는 특수문자들을 응용해 동자승, 목탁 등을 표현하는 데에 그쳤으나 불교문화 콘텐츠 생산에 일익을 보겠다는 선생님의 말을 듣고 본격적으로 나서게 됐다. 그러다보니 사

재미·감동·생활화가 ‘포인트’



그림·김영민

천왕상, 보살상 등도 찾아보게 됐고, 그 관심은 불교 미술 전반으로 이어졌다. 최근에는 불교미술 전반에 녹아있는 불법에 대한 의문을 하나하나 풀어가고 있는 중이다. 불교소재를 응용한 플래시 애니메이션,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는 불교 명상음악 역시 같은 방법으로 ‘불법을 전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

● 일상적 사고에 불교를 녹여라

“신앙 개발을 주제로 불교CF를 만들어 보라.” 명성여중 권진영 교사가 아이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다. 부처님이 약사가 된 이야기, 불성을 회복하는 약을 만든 이야기 등 아이들이 고안해 낸 판

고는 다양했다. 그러나 권진영 교사는 “‘몸 아프지 않길 바라지 말라’는 <보왕삼매론>의 가르침을 응용한 광고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불교적인 소재 차용에 그치지 않고 교리의 핵심까지 자연스럽게 흡수할 수 있는 사고를 제시하는 것이다. 불교교육이 종교활동에 국한될 때 아이들은 현실과의 괴리를 느끼기 쉽다. 때문에 ‘불법을 실천하는 길’이 현실에서 잘 사는 길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일상에서 녹여낼 수 있어야 한다. 효에 대한 주제 공부에 <부모은중경> 이야기를 함께 끌어내는 방식도 그런 예가 될 수 있다.

● 엄마 스스로 참여하라

매주 50~60명이 꾸준히 참석하는 관음사 어린이 법회에 가면 엄마들의 참여가 두드러진다. 엄마들은 법회에 앞서 지도법사로부터 프로그램을 미리 받고 세부적인 아이디어를 기획해 간다. 관음사 어린이 법회 지도법사 한순옥 보살은 “아이들을 사찰법회에 전가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아이들-엄마-지도법사 간의 끈끈한 유대관계를 키우라”고 주문한다. 그러한 과정에서 엄마들 역시 부족한 공부를 채우게 되고 궁극적으로 불자정신이 튼튼해질 수 있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강신재 기자 thatswhy@buddhapia.com

■ 연령대별 추천 불서

호기심이 한창일 나이의 아이에게 ‘불교’를 쉽게 설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내 자녀를 불자로 만들고 싶다면, 서점의 불서코너를 유심히 살펴보자. 부처님의 가르침을 감동과 재미를 곁들여 전하는 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초등학교 저학년이라면 그림에 신경을 써서 책을 고르는 것이 좋다. 최근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한 정채봉 씨의 동화 ‘오세암’을 만화로 엮은 <오세암>유병용 그림, 파랑새어린이나 동승이 절에서 겪게 되는 에피소드를 담은 <동승과 노스님>안태성 글/그림, 동아일보사, <만화로 보는 부처님 전생 이야기

저학년 ‘오세암·왕눈이 스님’

고학년 ‘불교EQ·아름다운...’

>정수일 글/그림, 운주사) 등은 그림만으로도 아이들의 호기심을 끈다. 성철 스님의 삶과 수행을 그린 <성철 큰스님>(불교만화사)이나 편양 언기 스님의 일대기를 담은 <왕눈이 스님>(운주사) 등도 권장한다.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는 <불생경>, <자타카> 등 경전 속의 설화를 바탕으로 한 책이 많이 출간되어 있다. <아름다운 우리 사람 13가지 숨은 이야기>(이규성 글/그림, 운주사)나 <부처님이 들려주는

108가지 이야기>, <아름다운 부처님나라>(윤승운 글/그림, 동쪽나라) 등은 만화로 엮은 에피소드와 함께 도움말이 들어 있어 이해를 돕는다. 경전으로는 <어린이 천수경>(김호성 지음, 이정문 그림, 불광출판부)과 <만화로 보는 부모은중경>(오거서불경만화기획연구팀 엮음, 오거서) 등이 쉽게 읽힌다.

<불교EQ>(우하 스님 지음, 좋은인연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읽으며 불교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에 좋다. 수년간 어린이 법회를 지도했던 대구 관음사 주지 우하 스님이 어린이들에게 받았던 질문과 그 답을 간추려 놓은 책으로, ‘부처님은 왜 황금색인가요’ ‘고기를 먹으면 안되나요’ 등 어린이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궁금증을 명쾌하게 풀어준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불기 2548년 5월은 부처님 오신 달

“우리도 부처님 같이” Buddha's Birthday

대한불교 총화종

원로위원장 전아웅  
총 정 이등광  
부 중 정 주인현 최해산  
총무원장 전남정

총 회 의 장 김희담  
문 화 원 장 신도명  
교 육 원 장 조고담  
호 계 원 장 권청담  
신 원 장 박청해  
사 회 부 장 조민호  
규 정 부 장 신법광  
이해인 박현오 김해각  
김지혜 임자혁  
김내혁 최도명  
유법경 이법오  
기해성 차재진  
정중화 권복국  
김해일 김해관

중도일동

총무원 :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 342-1  
홈페이지 : http://www.chonghwajong.org  
전화 031)592-8891 / 팩스 031)592-8892

대한불교 대각종

종정대행 청원 만청

총 무 원 장 만 청  
승 정 원 장 해 천  
감 찰 원 장 해 송  
교 육 원 장 해 방  
중 앙 종 회 의 장 해 정  
전 국 비 구 니 회 장 해 진  
만 청 문 도 회 장 월 천

■ 전국교구 종무원

서울교구 종무원장 해 각 대전교구 종무원장 현 암  
경기교구 종무원장 해 능 충남교구 종무원장 해 천  
대구교구 종무원장 대 천 강원교구 종무원장 해 선  
경남교구 종무원장 해 법 전북교구 종무원장 해 연  
경북교구 종무원장 월 천

중도일동

충남 부여군 내산면 저동리 21-5  
TEL 041)832-1188-9 / FAX 041)832-1187

불기 2548 (총기 33년)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합니다

불교 충지종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합니다.

법신불의 진언세계에서 즉신성불의 대도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통리원장 우 승 중앙종의회 의장 의 강  
재무부장 시 정 중앙종의회 부의장 원 송  
사회부장 환수원 사감원장 법 성  
교정부장 지희심

서울경인 교구장 지 성 부산경남 교구장 해 암  
대구경북 교구장 지 광 충청전라 교구장 법 성

불교 충지종 The Buddhism chongjijong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 2동 776-2 전화 02)552-1080-3 / 전송 02)552-1082  
http://www.chongji.or.kr